

TV뉴스의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관여도가 뉴스 기억에 미치는 영향*

박덕춘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Effect of TV news camerawork and viewers' involvement on memory of news*

Park, Dug-Chun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의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관여도가 뉴스에 대한 장단기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카메라워크의 유무에 따라 2가지 종류의 TV뉴스를 제작하여 관여도를 조작한 2개의 대학생 집단에게 시청하게 하고, 이들의 장단기 기억을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V뉴스 영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단기기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기억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여도가 높은 수용자들은 뉴스 내용에 대한 장단기 기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메라워크는 주변단서로서 고관여도 수용자보다 저관여도 수용자의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주제어 : TV뉴스, 카메라워크, 관여도, 정교화, 기억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effect of TV news camerawork and viewers' involvement on memory of news through experiment. For this experimental research, 2 groups of subjects composed of university students were exposed to different types of TV news and responded to survey questions which were analysed by SPSS program. This research found that camerawork of TV news doesn't have an effect on short-term memory but on long-term memory. Though the fact viewers' involve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short-term and long-term memory was found, interactive effect of viewers' involvement and camerawork as an peripheral clue was not found.

Key Words : TV news, camerawork, involvement, elaboration, memory

1. 서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하여, 수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

* 이 논문은 2012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Received 7 May 2013, Revised 6 June 2013

Accepted 20 July 2013

Corresponding Author: Park, Dug-Chun (Dongseo University)

Email: parkdc2521@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 중에서 텔레비전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신뢰성 있고, 영향력 있는 매체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연구결과[8]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텔레비전 방송을 인터넷, 신문, 잡지, 라디오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하고, 유익하고, 재미있고, 신속하고, 필요한 정보가 풍부한 매체로 평가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미디어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TV뉴스는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과 함께 제작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 가지 형태의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고, 화면 편집과 자료 화면의 사용이 용이해진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TV 뉴스가 타 매체의 뉴스에 비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요인들 중에서 영상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영상이 이처럼 강력한 미디어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TV 미디어 관련 연구들은 언어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영상과 언어 텍스트의 수용자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현실이다[4].

최근들어 텔레비전 미디어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과 영상 이미지의 수용자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소수 진행되고 있으나, 텔레비전 영상 제작 기법인 카메라의 움직임에 의한 수용자들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교화가능성 가설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관여도에 따라, 텔레비전 뉴스 영상의 카메라워크가 수용자의 기사 기억에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연구를 통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TV 뉴스와 정교화가능성 가설(ELM)

텔레비전 뉴스는 인쇄매체인 신문이나, 청각 매체인 라디오와는 달리, 매체의 특성상 영상과 음향, 그리고 자막이 언어텍스트인 기사와 함께 제시되는데, 그러한 시청각적 요소로 만들어진 구조적 특성상 다른 매체와 구분되는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동근[6]은 TV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 정보는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에게 단기간의 기억을 증가시키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인 기억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신문과는 달리, TV 매체는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상의 효과가 매우 큰 매체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TV 매체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상물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영상텍스트가 정보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기능주의적 연구 전통의 연장 속에서 1970년대 이후 뉴스 영상의 내용이나 제시 방법이 수용자의 기억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뉴스의 시각적 요소가 일률적으로 수용자의 정보습득, 기억, 그리고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10].

그레이브[9]는 뉴스의 영상은 부가적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감정적 소구효과만을 가질 뿐이라고 하였으며, 카츠와 그의 동료들[10]은 영상이 구술적으로 전달되는 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 수용자의 관심을 분산시켜 정보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강태성과 그의 동료들[11]은 텔레비전 하단의 '뉴스 스크롤' 자막, 소위 '뉴스티커'가 수용자들의 본 뉴스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뉴스의 주목도를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뉴스의 주목도가 중간 수준인 경우, 즉 외부 요인으로 인한 주의력 분산의 정도가 중간 정도일 때, 본 뉴스의 이해에 가장 큰 방해를 받았으며, 주목도가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뉴스 티커가 본 뉴스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기본 가설은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있는 고관여도 수용자일수록 중심경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부족한 저 관여도 수용자일수록 주변경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한다고 주장한다[11]. 관여도가 높은 수용자가 '중심경로(Central route)'를 통해 메시지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수용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미디어가 제시하는 메시지나 주장이 가치있는 것인지 어떤지 진지하게 숙고한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관여도가 낮은 수용자가 '주변경로(peripheral route)'를 통해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메시지나 주장 그 자체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오히려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용자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정보처리 과정에 참여하는가'하는 정도가 인지정교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여도가 낮으면 매체의 정보가 아무리 좋은 것이고,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은미와 그의 동료들[3]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들의 관여도에 따라서 인지 정교화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연구를 통하여, 관여도가 높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 집단에서 인지정교화가 크게 나타나며, 관여도가 낮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 집단에서는 인지정교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2.2 TV 뉴스와 영상제작기법

텔레비전 미디어의 영상제작기법은 크게 촬영기법과 편집기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촬영기법은 카메라워크, 화면의 크기, 카메라 앵글 등의 선택을 말하며, 편집기법은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기획의도와 상황 문맥에 맞게 의미있는 세부 장면을 선택하고, 특징의 시퀀스로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5].

시간축상에서 정지된 영상을 촬영하는 정사진과는 달리, 텔레비전은 시간축상에서 연속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목적과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카메라의 움직임, 즉 카메라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카메라워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카메라워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즉 '픽스샷(fix shot)'이 가장 기본이 되는 카메라워크라는 것이다.

그것은 수용자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촬영 기나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면속의 인물이나 물체가 어떤 말이나 어떤 동작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칫 불필요한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틀[12]도 화면의 움직임을 피사체의 움직임과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나누고, 화면 속에 나타나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는, 가능하면 카메라의 움직임을 자

제하여 수용자들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사체의 움직임을 따라 카메라워크를 시도할 때는 피사체의 속도에 맞추어 부드럽게 움직여 주어어야 하며, 속도에 따라 적절한 여백, 즉 '리드룸(lead room)'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TV뉴스에서 영상 표현기법을 비교 분석한 김수정[2]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TV뉴스에서는 안정적인 영상을 구성하기 위하여 카메라워크를 자제하는데 반해, 한국의 TV뉴스에서는 생동감과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급격하고 빈번한 카메라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카메라워크는 카메라 본체 부분만 움직이는 카메라워크와 카메라 전체가 움직이는 카메라워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카메라워크는 카메라가 수용자의 눈을 대신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주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줌'은 눈을 고정된 상태로 두면서 대상물의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7].

설진애[5]는 텔레비전 영상은 영화에 비해 화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연출기법이나 촬영기법 측면에서도 통찰을 통한 스펙터클 장면보다는 바스트샷이나 클로즈업 등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이정[7]은 각각의 개별 장면들의 묘사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를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개별 장면들을 그 그림의 구성요소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텔레비전 수용자들은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있는 고 관여도 수용자일수록 중심경로를 통해,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해 숙고하며,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부족한 저관여도 수용자일수록 주변경로를 통해 메시지 전달자나 환경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변단서로 간주되는 TV영상의 카메라워크는 가능한 한 자제하여

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용자들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피사체의 움직임 속도에 맞추어 부드럽게 해 주어야 하고, 카메라워크를 하지 않는 픽스 샷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V뉴스 영상의 카메라워크와 관여도가 수용자의 기사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TV뉴스 영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1> TV뉴스 영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단기기억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2> TV뉴스 영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장기기억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수용자의 관여도는 뉴스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1> 수용자의 관여도는 단기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2> 수용자의 관여도는 장기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1> 카메라워크는 고관여도의 수용자보다 저관여도의 수용자의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1> 카메라워크는 고관여도의 수용자보다 저관여도의 수용자의 단기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2> 카메라워크는 고관여도의 수용자보다 저관여도의 수용자의 장기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TV뉴스 영상에서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관여도가 기사에 대한 장단기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2년 부산 콘텐츠마켓 행사 관련 뉴스를 제작하여, 대학생들로 구성된 2개의 집단에게 시청하게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피험자들의 장단기 기억을 측정, 분석하였다.

제작된 뉴스는 약 2분 분량의 리포터 뉴스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동일한 내용의 뉴스를 각각 카메라워크가 있는 뉴스와 카메라워크가 없는 뉴스로 구분하여 2가지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카메라워크는 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닝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줌과 틸트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험자들은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첫 번째 집단은 카메라워크가 있는 뉴스를 시청하고, 2번째 집단은 카메라워크가 없는 뉴스를 시청하였으며, 시청 후 장기 기억을 측정한 다음, 단기 기억을 측정하였다.

이처럼 장기기억을 먼저 측정한 것은 단기 기억 측정 방식인 재인 기억 측정을 먼저 하게 되면, 재인 기억의 설문 문항에서 읽은 내용이 단어와 문장 기술 방식의 측정인 장기 기억 측정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컴퓨터 실습실에서 실시된 본 실험에서 관여도는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하여, 피험자들이 PC의 모니터를 통해 시청하게 되는 영상물의 앞부분에 자막 메시지를 삽입함으로써 피험자들의 관여도를 조작하였다. 고관여도 집단의 영상물에는 "뉴스 영상물을 시청하신 후 뉴스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저관여도 집단의 영상물에는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듯이 편안하게 시청"하라는 자막을 10초간 보여주었다.

중속변인인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장기 기억 : 기사의 내용을 단어, 단어와 단어의 결합, 문장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장기 기억으로 정의하였으며, 피험자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을 설문지의 박스 안에 기술하게 하고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는 단어에는 1점, 단어와 단어의 결합에는 2-3점, 문장에는 4-5점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나. 단기 기억 :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보고 시청한 뉴스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기억할 수 있는 정도, 즉 재인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정의하였다. 모두 10개의 기사관련 문장을 제시하고 정확하게 기억한 문장의 수를 측정하였다. 재인 기억, 즉 단기기억을 측정함에 있어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3개 포함시켜, 거짓으로 기억한다고 답하는 응답을 통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기억

4.1.1 카메라워크와 단기 기억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남자 대학생 28명, 여자 대학생 34명, 모두 62명이 참여하였으며, 카메라워크가 있는 영상물에 노출된 피험자와 카메라워크가 없는 영상물에 노출된 피험자의 수는 각각 30명, 32명이었으며, 고관여 처치된 피험자수와 저관여 처치된 피험자 수는 각각 31명이었다.

<연구문제1-1> “TV뉴스 영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단기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카메라워크 여부를 독립변인, 수용자의 단기 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 Camerawork and short-term memor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camerawork	30	7.10	1.47	.957	1	.332	.12
no camera work	32	7.43	1.24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단기 기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957$, $df=1$, $p>.05$).

4.1.2 카메라워크와 장기 기억

<연구문제1-2> “TV뉴스 영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장기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카메라워크 여부를 독립변인, 수용자의 장기 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 Camerawork and long-term memor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camerawork	30	5.60	1.65	5.28	1	.025	.28
no camera work	32	7.09	1.85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장기 기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28$, $df=1$, $p<.05$). 즉 카메라워크가 있는 뉴스 영상을 시청한 사람(평균=5.60)과 카메라워크가 없는 뉴스를 시청한 사람(평균=7.09)의 뉴스 장기 기억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장기 기억 간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ta=0.28$).

4.2 수용자의 관여도와 뉴스 기억

4.2.1 수용자의 관여도와 단기 기억

<연구문제2-1> “수용자의 관여도는 단기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여도를 독립변인, 수용자의 단기 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 involvement and short-term memor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low-involved	31	6.21	1.25	6.84	1	.003	.45
high-involved	31	8.35	1.42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자의 관여도와 단기 기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84$, $df=1$, $p<.05$). 즉 관여도가 높은 수용자(평균=8.35)는 관여도가 낮은 수용자(평균=6.21)보다 기사의 내용에 대해 단기 기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의 관여도와 단기 기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ta=0.45$). 이 결과는 관여도가 수용자의 단기 기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4.2.2 수용자의 관여도와 장기 기억

<연구문제2-2> “수용자의 관여도는 장기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여도를 독립변인, 수용자의 장기 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involvement and long-term memor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low-involved	31	5.75	1.32	9.51	1	.001	.56
high-involved	31	8.21	1.56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자의 관여도와 장기 기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51$, $df=1$, $p<.05$). 즉 관여도가 높은 수용자(평균=8.21)는 관여도가 낮은 수용자(평균=5.75)보다 기사의 내용에 대해 장기 기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의 관여도와 장기 기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eta^2 = 0.56$). 이 결과는 관여도가 수용자의 장기 기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4.3 카메라워크와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

4.3.1 단기 기억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카메라워크는 고관여도의 수용자보다 저관여도의 수용자의 단기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1-1〉을 알아보기 위해서, 카메라워크와 관여도를 독립변인으로, 단기 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5〉-〈표6〉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5〉 involvement, camerawork, short-term memory

Category	Case	Mean	SD
Camerawork	low-inv.	15	6.83
	high-inv.	15	7.37
no Camerawork	low-inv.	16	7.15
	high-inv.	16	7.71

〈Table 6〉 ANOVA of involvement, camerawork, short-term memory

Category	DF	F	Sig.	eta
Inv.× Camerawork	1	0.826	.450	.05

〈표5〉와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카메라워크’와 ‘관여도’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0.826$, $df=1$, $p>.05$). 따라서 “카메라워크는 고관여도의 수용자보다 저관여도의 수용자의 단기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1-1〉은 기각되었다.

4.3.2 장기 기억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카메라워크는 고관여도의 수용자보다 저관여도의 수용자의 장기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1-2〉을 알아보기 위해서, 카메라워크와 관여도를 독립변인으로, 장기 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7〉-〈표8〉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7〉 involvement, camerawork, long-term memory

Category	Case	Mean	SD
Camerawork	low-inv.	15	4.23
	high-inv.	15	6.96
no Camerawork	low-inv.	16	6.74
	high-inv.	16	7.45

〈Table 8〉 ANOVA of involvement, camerawork, long-term memory

Category	DF	F	Sig.	eta
Inv.× Camerawork	1	1.437	.215	.08

〈표7〉와 〈표8〉에서 볼 수 있듯이 ‘카메라워크’와 ‘관여도’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437$, $df=1$, $p>.05$)

따라서 “카메라워크는 고관여도의 수용자보다 저관여도의 수용자의 장기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1-2〉 또한 기각되었다.

5. 결론

그동안 수용자의 기억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있는 고관여도 수용자일수록 중심경로를 통해 메시지 자체에 대해 숙고하며,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부족한 저관여도 수용자일수록 주변경로를 통해 정보원이나 주변 환경 등에 더 많

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주변 단서로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영상의 카메라워크가 수용자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관여도와 카메라워크가 수용자의 장단기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TV뉴스를 카메라워크가 있는 뉴스와 카메라워크가 없는 뉴스로 각각 제작하고, 관여도가 조작된 대학생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시청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장단기 기억을 측정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V뉴스 영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단기기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장기기억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여도가 높은 수용자들은 뉴스 내용에 대한 장단기 기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단서인 카메라워크는 고관여도 수용자보다 저관여도 수용자의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 미루어볼 때, 텔레비전 뉴스 영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들이 단어와 단어의 결합, 그리고 문장을 서술하는 방식인 장기기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여도가 높은 수용자들이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을 더 잘 하며, 단기기억을 잘 하는 사람이 장기기억도 더 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관여도에 따라 카메라워크가 수용자의 장단기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집단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실험자극인 텔레비전 영상물을 여러 가지 내용의 뉴스가 아니라 특정한 주제의 한 가지 뉴스만을 대상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 देने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가정에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뉴스를 시청한 것이 아니라, 실험실 내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이어폰을 끼고 뉴스를 시청하였다. 이는 수용자들의 실제 텔레비전 시청환경과 다르다는 점이 실험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수용자의 기억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카메라워크와 관여도가 수용자에 관한

연구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의미있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gseo University, "Dongseo Frontier Project" Research Fund of 2012.

REFERENCES

- [1] T. S. Kang, The Effect of news tickers in TV news on Viewer news comprehension., *Journal of Korean Broadcasting*, 23-6, 7-46, 2009.
- [2] S. J. Kim, Visualization of news objectiveness: comparative case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environmental news, *Journal of Korean journalism*, 47-5, 363-384, 2003.
- [3] E. M. Kim, S. H. Kim, S. H. Han, Effect of interactivity and involvement in the user's information processing and emotional responses, *Journal of Korean journalism*, 52-4, 250-277, 2008.
- [4] S. G. Baek, *TV Image Semiotics*, Communicationbooks, 2003.
- [5] J. A. Sul, *Fundamentals of broadcasting planning and production*, Communicationbooks, 2003.
- [6] D. K. Le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television viewer's information processing TV drama and news, *Journal of Korean journalism*, 42-3, 137-170, 1998.
- [7] I. J. Choi, *Visual Production*, Communicationbooks, 2004.
- [8] Federation of Korean Journalism, *Journalism receivers' consciousness of 2004, the 12th survey of trust and effect of media*, 2004.
- [9] Graber, D. A. *Processing the news: How people tame the information tide*(2nd ed.). New York: Longman. 1988.
- [10] Katz, E., H. Adoni & P. Parness. "Remembering the News-What the Picture adds to Recall,"

Journalism Quarterly, 54. pp. 231-9. 1977.

- [11] Petty, R. E., Barden, J., & Wheeler, S.C.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In R. J. DiClemente, R. A. Crosby, & M. Kegler (Eds.), Emerging theories in health promotion practice and research (pp. 71-99). San Francisco: Jossey-Bass. 2002.
- [12] Zettl, H. Sight, Sound, Motion: Applied Media Aesthetics (3rd ed.), Wardsworth Publishing Co. 2002.

박 덕 춘(Park, Dug-Chun)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 공학사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 언론학 석사
- 2010년 8월 : 경북대학교 언론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방송 영상
- E-Mail : parkdc2521@hanmail.net